

한국자본 · 기술력과 투르크 자원,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약속

한 총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회담

한승수 국무총리는 92년 수교 이래 한국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16일(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의 개혁 및 대외개방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간에 추진 중인 에너지·자원 개발, 건설·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겸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였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겸 총리는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이 여러 방면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겸 총리는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다대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단기간내에 고도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희망하였다. 이에 한 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 공무원 초청 연수 등 투르크메니스탄측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의향을 표명하고,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겸 총리가 이에 사의를 표하는 등 양측은 민·관

공동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직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겸 총리 및 한승수 총리 임석하에 석유·건설·교통·투르크멘바쉬항 현대화 사업·전력·가스산업 협력 및 전대라인 설정 양해각서(MOU)들이 체결됐다. 동 MOU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에서 개최된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한승수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창조적 실용주의 기조 하에 우리 정부가 투르크메니스탄과 실질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양국간 최초로 개최되는 금번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한-투르크멘 경제인들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다수 발굴될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측이 석유·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우리측은 자본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간 협력 유망 분야에서의 사업이 구체화되어 양측이 윈-윈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전망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해주는 민간 외교단인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한 총리는 내수에 의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망 신흥시장 진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해외 각지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양국간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추진중인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사업, 세이디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및 투르크메니스탄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메레도프 부총리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메레도프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시장 진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레도프 부총리는 양국간 인적자원 교류 확대를 통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한 총리는 대 투르크메니스탄 맞춤형 연수 제도 등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기여외교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여타 유망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타기예프' 석유·가스·천연자원 담당 부총리 및 '샤굴리예프' 건설 담당 부총리를 각각 면담, 에너지·자원 및 건설·교통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격상 기대

한 총리는 '타기예프' 석유·가스·천연자원 담당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주요 자원 생산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세계 6위의 정유산업 국가인 한국간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다대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를 추진 중인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사업, 세이디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가스파이프 제조설비 공급 사업 등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샤굴리예프' 건설 담당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건설·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투르크메니스탄 현대화 등 우리 기업이 진출 추진 중인 관심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타기예프' 석유·가스·천연자원 담당 부총리 및 '샤굴리예프' 건설 담당 부총리는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심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투자·진출 확대 및 사업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겸 총리 명의 만찬에 참석한 한 총리는 건배사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도성장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의 강인함을 평가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양국 경제구조를 토대로 양국간 호혜적 협력관계가 향후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금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